

주일한국대사관 과학관(科學官)의 벼루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서적을 구하는 일이었다. 본국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하는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수도 있다. 공·사간 방문객이 구해 달라기도 했고 이쪽에서 구해 갖고는 읽어 보라고 전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대로 일본은 출판 왕국이라고 말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

을 감춘 것이었으니 애를 먹는 것이 예사였다. “서당개 3년에 풍월을 한다”고 그런 일도 이력이 나니까 어떤 종류의 책이면 어느 서점에 1~2권은 남아 있겠지 하는 짐작이 들어맞게끔 됐다.

### 1백년 넘는 출판사 20여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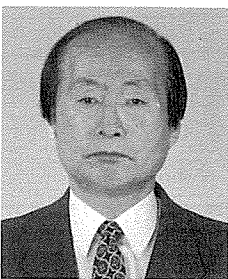
일본의 본격적 출판업은 명치유신(1868년) 이후에 개시됐다. 격심한 흥망성쇠의 물결 속에서 1869년 창업한 양서(洋書)의 마루젠(丸善)을 위시해서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출판사가 근 20여개소나 존재하고 있다. 책을 좋아하는 국민이 떠받쳐준 덕이라고나 할런지. 가네하라(金原)출판사 등 의학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명치 초년에 창업했던 출판사들이 아직도 몇개소나 남아서 활기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과학기술의 저력의 일단을 보이는 것이라 싶기도 하다.

「과학」이니 「자연」이니 하는 월간잡지도 발행하고 수많은 이공학관련 단행본을 내기도 하는 명문 이와나미쇼덴(岩波)서점은 80년을 좀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전파과학사에서 번역서를 내온 「블루박스 시리즈」를 발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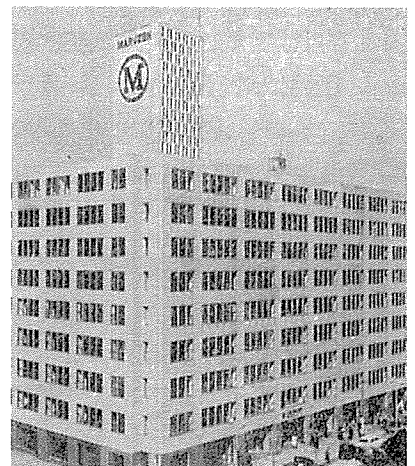
## 日本 見聞記 <Ⅳ>

「출판왕국」 일본에서는 2만여개소가 넘는 서점에 항상 손님이 붐비고 있고 전국의 도서관은 입장자로 범석거린다. 1백년이 넘는 출판사만도 20여개소나 존재하고 있고 장서가도 많아 23만권을 수집한 평론가도 있다. 일본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이 막강한 독서층의 지적 에너지에서 오는 것이다.

은 서적을 발행한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서적을 많이 읽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나 전차나 기차 속에서 책을 읽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책을 읽는다. 그 많은 서점은 항상 손님으로 붐비고 작건 크건 도서관은 입장자로 범석거린다. 서점 수도 많아서 고서점까지 합하여 한때 2만곳 정도를 헤아렸다. 최근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나 거리 어느 곳에서도나 서점을 찾기는 쉽다. 도쿄(東京) 진보조(神保町)라는 곳은 백수십개 고서점이 한거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어 명소가 돼 있다. 신간 서점이 많다고 해도 하루 80여점 정도씩 보내지고 있으니 선반에 머무는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다.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 한 곧 쫓겨나고 만다. 그런데 대개 구해 달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모습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 일본 마루젠의 본사 모습. 여러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는 일본 최대급의 출판사 고단(講談社)은 그보다 약간 일찍 발족했다. 16년 전에 과학잡지 「뉴턴」의 창간호를 25만부 찍어 바로 매진되자 다시 10만부를 더 찍어냈고 그 뒤 한때 40여만부까지 발행 부수를 늘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교이쿠(教育)사는 비교적 젊은 출판사축에 낀다.

책을 구입하려면 신간·고서를 다루는 서점 이외에 정부간행물센터라는 곳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세이후(政府)청사들이 모여있는 가즈미가세키(霞ヶ関)라는 곳과 금융회사가 모여있는 오데마치(大手町)라는 곳에 있는 그 곳 센터에는 한국의 고급 공무원이나 대회사 간부들이 많이 들린다. 오쿠라쇼(大藏省) 인쇄국에서 발행하는 정부 각 쇼초(省廳)의 각종 백서(白書)를 비롯 법전, 통계, 일반 과학기술관련 서적까지 그 곳에서 볼 수 있어 꼭 책을 구하지 않더라도 탐색을 위해서 자주 둘러보아야 했다.

### 평생 23만권 수집한 장서가도

일본은 장서가(藏書家)도 놀라게 많은 나라다. 정치가로는 고(故)오히라(大平) 수상이 독서가이면서 장서가로 꼽혔으나 많은 장서가 화재로 타버리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재계인으로는 도쿄덴료쿠(東京電力)사장을 거쳐 재계총리라는 게 이단렌(經團連)회장까지 역임했던 히라이와가이조(平岩外四)씨가 유명한 장서가다. 그러나 이들은 수만권 정도의 장서가에 지나지 않고 7만권이 있다는 예능 평론가, 13만권인가를 갖고 있다는 작가, 15만권을 돌파했다는 서적연구자들이 사람을 놀라게하는 가운데 일본 최고의 장서가는 생전 「매스컴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평론가 오야소이치(大宅壯一)임을 알게 됐다. 여러 가지 잡지의 백넘버까지 갖춰 생전에 무려 23

만권의 서적을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가 서거한 뒤 살던 곳 즉 그 수많은 책이 보관돼 있는 곳을 오야문고(大宅文庫)라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신주쿠(新宿)에서 게이오센(京王線)이라는 전철을 타고 하치만산(八幡山)역에서 내려 얼마 안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곳을 한번 찾아가 본 일이 있다. 매스컴 관련 자료가 많고 색인이 잘 정리돼 있어 매스컴전공학도의 메카라고까지 소중히 여겨지는 곳이라는 소문이 헛되지 않음을 그곳서 자료도 청구해 보고 직원과 이야기도 나누는 가운데 실감할 수 있었다. 분게이슈운주(文芸春秋)라는 종합 월간지에서 전 다나카가쿠에이(田中角榮)수상의 비리와 부정을 폭로함으로써 퇴진케한 다치바나다카시(立花郁隆) 도쿄(東京)대학의 객원교수도 그 곳을 무시로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기술서적의 성격상 과학기술자들은 엄청난 숫자의 서적을 모으기는 힘들었는지 유명한 장서가로 알려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민속학자면서 생물학자(점균전문)였던 미나가다구마구즈(南方熊楠)씨는 22개 국어를 읽고 쓰며 젊어서부터 영국의 「네이처」라는 유명한 잡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해 국제적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장서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서보다는 정리 못하고 남긴 자료가 엄청나서 그가 1941년에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줄곧 정리를 하고도 또 완전 정리하는데 50년은 더 소요된다고 말해질 정도다. 그는 스케일이 큰 일본 최대의 석학으로 지금도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다.

최근의 한·일간의 관계는 상당히 냉랭해진 느낌이 든다. 작가 조정래씨는 「아리랑」에서 식민지시대 전까지 포함해

서 일본인한테 3백만 내지 4백만명의 우리 동포가 희생됐으며 1백70만명의 친일파가 있었다고 쓰고 있다. 그것으로 한일간 교류의 밑바닥에는 무수한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소감을 일귀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 과학기술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일본이 실재하고 있다. 무역적자만도 막대한 액수여서 그것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당면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과학기술 원동력은 지적에너지

수년전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도 했던 가라쓰하지메(唐津一)박사는 「'신(新)'의 시대가 온다」라는 근저에서 95년도의 일본의 GDP는 4백55조엔(1달러는 1백엔)이었는데 이는 세계 GDP의 16.3%라 했다.

미국의 2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억 2천만 인구의 일본이 올린 GDP는 1억 9천만명의 독일, 영국, 프랑스의 GDP를 합친 것을 웃돌고 중국은 69조엔, 한국은 45조엔이었으니 한단계 아래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냉엄한 숫자 앞에 무슨 해명이 필요하겠는가. 수백만 동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 추독부건물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식으로 계속 한일간의 관계를 냉랭하게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없애버린 것을 계기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관계를 수립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닐까 싶다.

출판왕국, 장서가 왕국의 일본을 현실적으로 겪어본 사람은 일본인의 지적(知的)에너지의 막강함을 압도당하는 기분을 몇번은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 지적에너지의 막강함을 일본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67